

## 茶山詩經論에 있어서 風개념의 형성

沈 慶 昊

1. 茶山 丁若鏞은 《詩經講義補遺》(純祖 10年 1810春)에서, 朱熹가 風을 風化의 뜻으로만 보았다고 비판하고서, 風을 諷刺의 뜻으로 정의하였다

上以風化下者, 風教也, 風化也, 其音爲平聲. 下以風刺上者, 風諫也, 風刺也, 風喻也, 其音爲去聲. ……序說欲兼統二義而可得乎. 朱子集傳削去風刺, 孤存風化. 雖然風刺之義, 因可講也.

茶山은 또 風=諷(깨우치다)의 근거를, 崔靈思集注, 徐氏·劉氏 說에서 찾았다.

2. 金興圭氏는 《朝鮮後期の 詩經論과 詩意識》(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에서 茶山이 風詩를 <바른도리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에서 권력의 밖에 있는 賢人이 미묘한 말 속에 뜻을 의탁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사회적 비판을 행함으로써 善의 길이 드러나게 하려는 詩>라고 보았다. 또 朱熹가 民의 현실비판 기운(下以風刺上)을 부정한 것은 그의 관념체계가 농노 지배의 사회신분적 상하관계를 절대화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있다고 하였다. 이 논저는 江戸幕府의 주자학을 주자학의 본질로 파악한 守本順一郎 《東洋政治思想史研究》에 힘입고 있으며 茶山の 朱熹批判을 朱熹이해에 직접 끌어들이고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毛詩大序는 <風, 風也, 教也. 風以動之, 教以化之>라 하였다. 이에 대해 陸德明의 釋文은 <風, 風也>의 두 風字를 平聲으로(並如字) 읽는 音注와, 윗자를 平, 아랫자를 去聲(福鳳反)으로 읽는 徐氏注를 나란히 적고 있다. 또 崔靈思集注本에는 아랫자가 諷으로 되어 있고, 劉氏는 動物이 風이고 託音이 諷이라 하였으며, 崔靈思은 <用風感物則謂之諷>이라 하였다고도 적고 있다. 곧, 崔靈思, 徐氏, 劉氏가 논하는 風=諷이란 下以風刺上=風刺의 뜻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孔穎達의 疏가 風을 두고, 王者強化의 첫단계인 <微

加曉告>라 풀이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崔·徐·劉의 설을 따라 風=飆를 去聲으로 읽는다면, 風化의 風도 去聲으로 읽어야 한다. 茶山이 風=風刺를 去聲으로 읽으면서 崔 등의 설을 끌어온 것은 스스로 혼란을 초래할 소지를 안고 있다.

4. 毛詩大序는 그러나, 茶山이 말한 것과 같이, 風을 風化와 風刺의 두 의미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孔疏는 <上以風化下, 下以風刺上·故曰風>의 부분이 風만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賦·比·興·雅·頌까지도 포괄하여 논한 것이며, 作詩에서는 人臣의 風刺, 用詩에서는 人君의 風化를 말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在上人君用此六義, 風動教化. 在下人臣用此六義, 以風喻箴刺君上.

孔疏가 作詩에서 人臣의 風刺를 인정하면서도, 用詩에서는 人君에 의한 風化를 강조한 것은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5. 한편, 朱熹는 《詩集傳》에서 風詩를 民俗歌謠로 보면서, 風의 뜻을 <如物因風之動以有聲, 而其聲又足以動物也>로 보아, 崔靈思의 風=飆(用風感物)과 劉氏의 <託音曰飆>설을 종합하려 하였다. 또 그는 風의 그러한 뜻이 <以其被上之化以有言, 而其言又足以感人>이라는 風詩의 성격을 비유한다고 하였다. 이때, <以其被上之化以有言>은 民間歌謠가 教化의 사실을 반영한다는 作詩와 관련된 사항이다. 그에 비하여 <其言又足以感人>이란 用詩의 사실을 말한다. 즉, 朱熹가 風으로써 風化만을 뜻한다고 본 茶山의 설은 風化↔風刺의 대립항을 用詩에 있어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옳다고 할 수만은 없다. 朱熹는 또 用詩에서, 孔疏와는 달리, 人君에 의한 風化를 중시하지 않았고, <感人>에 주목하고 있다. 이 <感人>은 《詩集傳》이 계속하여 논술하고 있듯이, 물론 采詩觀風說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전이될 수 있다. 하지만, <感人>은 當代的 意味에 있어서는 士大夫의 吟咏性情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전이된다. 朱熹가 <溫柔敦厚>를 讀詩效果로서 본 것도, 風으로써 <위로부터 아래로의 教化>를 중시하기보다 士大夫의 讀詩의 當代的 의미를 중시한 때문이었다. 朱熹는 風=民間歌謠가 教化의 사실을 반영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詩篇을 治亂의 반영으로 강요한 詩序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 <詩集傳書>(淳熙四年 1177, 朱熹 四十六歲作)는 《詩集傳》의 실제 序

文이라기 보다 그 초고의 序였다는 것이 통설이다. 거기서는 詩篇을 반영론적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詩者，人心之感物而形於言之餘也。心之所感有邪正，故言之所形有是非。惟聖人在上，則其所感者無不正，而其言皆足以爲教。其或感之雜而所發不能無可擇者，則上之人必思所以自反而因有勸懲之。是亦所以爲教也。

여기서 〈聖人在上〉云云은， 民이 王化를 입어 지은 正詩의 경우를 가리키고， 〈其或感之雜〉云云은 變詩를 가리킨다. 그 설은 蘇轍의 설을 취한 것으로， 《詩傳大全》이 〈詩集傳序〉에다 蘇轍의 설을 小注로 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金興圭氏가 이 부분을 두고， 聖人이 느낀 바는 바르고 凡人의 情은 도덕적 통제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上以風化下의 논리가 있게 되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다 하겠다.)

〈詩集傳序〉에서는 〈上之人必思所以自反，而因有以勸懲之〉라 하여， 詩敎의 〈과거 그때의 의의〉가 논의되었고， 그로써 上之人을 勸懲의 主體(따라서 民을 그 客體)로 두고 있다. 이는 孔疏 등의 舊說과 같다.

《詩傳大全》은 大序를 수록하고， 朱熹 名義의 注를 실어두고 있는데， 〈上以風化下，下以風刺上……故曰風〉에 대한 注는， 風을 六義의 總名으로 보지 않고(孔疏와 다름) 風詩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되， 風의 개념으로 風化， 風刺의 둘을 종합하려 하였다.

風者，民俗歌謠之詩，如物被風而有聲，又因其聲以動物也。上以風化下者，詩之美惡，皆出於上而被於下也。下以風刺上者，上之化有不善，則在下之人又歌詠其風之所自以譏其上也。凡以風刺上者皆不主於政事而主於文詞，不以正諫而託意以諫，若風之被物，彼此無心而能有動也。

西溪 朴世堂이 《詩經思辨錄》에서 지적하였듯， 〈彼此無心〉云云은 남득이 가지 않으나， 이 注는， 〈以其被上之化以有言，而其言又足以感人〉이라는 《詩集傳》의 風개념에서 〈以有言〉의 한 내용으로 風刺를 두고 있는 것이다.

6. 茶山은 風의 원리를 作詩와 用詩 양면에 있어 風刺로 보았다. 그의 논리는 用詩에서 風詩=諷人主詩라 규정함으로써 用詩 원리=作詩원리를 주장， 作詩면에서도 風詩=諷人主詩를 도출해내는 식이다. 用詩面에서 風詩=諷人主詩의 규정을 하게 된 근거는， 周禮春官의 〈瞽矇掌…諷誦詩〉이다. 그런데 春官瞽矇掌의 〈諷誦詩〉는 〈世奠繫〉와의 連文이다. 鄭司農은 〈諷誦詩，

主誦詩以刺君過)로 풀이하였지만, 鄭玄은 <世奠繫> (帝擊·世本에다가 葬禮後 諡를 적는 일)가 王의 崩後 일임에 주목하여, <諷誦詩>를 <諷誦王治功之詩以爲諡>라 풀이하였다. 또, 賈公彥의 疏는 鄭司農과 鄭玄의 설이 서로 용납되지 않음을 논해두고 있다. 鄭司農은 諷=諫諍으로 鄭玄은 諷=閣讀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茶山은 서로 용납되지 않는 이 두 설을 摘記하고서, 諷=諷人主, <諷誦詩>의 <詩>를 風詩로 曲引하였다.

7. 茶山이 風=諷人主의 개념을 주장하는 것은, 詩經을 諫書로 보는 毛奇齡의 詩經論에서 다소 영향받은 바 있다. 茶山의 辛亥詩經講義條對에서는 小序를 중시하고 朱熹의 鄭風淫詩說을 비판하는 毛奇齡의 설이 일정하게 수용되어 있다. 그러나 毛奇齡은 諫書說을 더욱 논리화하지는 않았고(風·雅·頌을 茶山처럼 양식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陳詩觀風說을 고집하여, 淫詩를 陳設할 수는 없었을 터이므로 鄭風을 淫詩로 규정한 朱熹의 설은 그릇되다고 논한데 그쳤었다.

이에 대하여 茶山은 《詩經講義補遺》에 있어서, <詩人直筆, 嚴於春秋, 不諱國惡, 不吐疆禦>라 하여 詩가 지닌 諷刺의 철저성을 들어 陳詩觀風說을 부정하였다. 이는 毛奇齡의 諫書說을 作詩의 면에서 철저히 전개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8. 茶山은 作詩, 用詩 양면에서 諷刺를 중시하였고, 그 諷刺의 客體를 人主로 보았다. 그것은 春秋賦詩의 風詩가 모두 公家之事로, 閭巷卑微之民에 관한 것이란 하나도 없다는 단정에서 비롯한다.

風詩之見於春秋者, 考其事實, 皆是公家之事. 閭巷卑微之民, 雖有善惡, 隨施刑賞, 使各勸懲. 其有言辭, 何足以被之管絃, 列之樂官哉.

여기서는 茶山의 民중관이 직접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風詩의 내용이 公家之事의 善惡을 다루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의 앞에서, 茶山은 風의 특성을 <託意微言, 陳善閉邪>에 의한 <感發善心, 懲創逸志>에 있다고 논하였는데, 民歌에는 이러한 특성이 구비되지 못한다고 본 것이라면, <閭巷卑微之民>이 淫人이 아니라 閭巷民 일반을 가리키는 쉽게 알 수 있다.

茶山은 諷人主의 主體를, 孟子離婁上에 보이는 <大人>으로 보았다. 茶山은 孟子離婁上의 <人不足與適也, 政不足與聞也. 唯大人爲能格君心之非, 君

仁莫不仁, 君義莫不義, 君正莫不正, 一正君而國定矣》를 근거로, 國風諸詩는 大人이 〈一正君〉을 責務로 삼아 지은 것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9. 風을 諷刺로 규정한다 하여도 風詩 가운데는 四家詩가 모두 諷刺詩로 보지 않거나, 辭意에 諷諫의 뜻이 나타나 있지 않는 詩들이 있다. 茶山은 擲風靜女篇의 〈俟我於城隅〉를, 后夫人의 女史가 內殿의 桴思에 와서 俯伏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이라고 논하여, 그 시가 淫詩가 아님을 주장한 바 있다. (辛亥條對 112) 그러나, 그는 그러한 美風을 그린 詩가 諷人主의 風詩 속에 들어 있는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아마도 茶山은 〈陳古以刺今〉의 원리를 여기에 적용하였는지 모른다. 茶山은 雅도 風과 같이 〈感發善心, 懲創逸志〉의 歸趣가 있되, 雅는 正言, 風은 微喻의 방식을 씀이 다르다 하였는데, 小雅魚藻之什采芣篇에서 〈詩之爲道, 陳古以刺今〉의 원리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그러나 〈陳古刺今〉은 小序가 시편의 世次를 중시하여 도입한 원리로, 시편의 世次를 小序의 설에 따라 고려한다고는 할 수 없는 茶山이 ‘과거의 찬미=현실비판’의 원리를 모든 美詩에 일관되게 적용하였는지는 의문이다.

10. 茶山の 〈風=諷人主〉 개념은, 諷諫의 主體=大人(大德之人, 곧 士大夫 가운데 正己而物正者)과, 諷諫의 客體=人主를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것은 士大夫의 實踐, 사회정치 맥락속에서의 역할을 강조한 사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作詩와 用詩의 양면에서 그 개념을 일관되게 적용하려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士로서의 뚜렷한 自意識과 救世的 熱情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하겠다. 더구나 諷人主의 作詩用詩를 當代的 의미로 추체험할 때, 그러한 詩意識을 담은 新作詩들이 현실허부 및 비판의 성향을 띄게 될 것은 자명하다. 茶山の 〈社會詩〉들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시〉 개념이 현실비판의 주·객체가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며, 더구나 民 자신의 현실비판 기운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란 사실은 주의되어야 하겠다.

또 한가지, 茶山은 詩篇 특히 風詩를, 大人이 公家之事를 가지고 人主를 諷諫하는 詩로 봄으로써, 그 詩意識과는 별도로 大人의 이른바 抒情詩가 성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는 抒情詩의 한 양식으로 詞를 짓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拙稿 〈詩 장르의 역사적 변화와 詞—益齋 李齊賢과 茶

山 丁若鏞의 경우를 중심으로〉 (백영정병욱선생회갑기념논총, 1982)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다.

11. 風=諷(諷刺)으로 본 茶山의 風詩 개념은 尹廷琦의 《詩經講義續集》에서 수정된다. (尹廷琦의 이 《續集》은 高宗五年(1868)에, 茶山의 詩經論을 祖述함을 표방하면서 지어진 것인데, 실제로는 尹 자신의 설을 담고 있음은 물론이다.)

尹廷琦는, 作詩의 面에서 風詩는 風刺의 뜻을 담고는 있으나, 風 자체는 樂名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風詩의 音韻이 溫柔淸和하다는 형식요건을 중시한 때문이지만, 用詩에서의 諷人主 기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인 듯도 하다.